

## 圖書館界가 要求하는 事項은

### 대단히 많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고가도로 몇십미터 건설되면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통렬한 아쉬움의 외침은 비단 우리 도서관인들 것만의 것이 아니다. 敎育界가 그렇고 市民이 그렇고 또 經濟的 富를 획득하고자하는 開發途上國의 開發論者들의 持論이기도 하다. 그리고 불도져 운전사들이 더 새로운 技術을 배우기 위하여 건전한 市民으로서 교양과 품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도서관의 터를 닦을 일이다.

그런데 그 불도져가 도서관을 밀어 부치고 거기에 최대 규모의 호텔을 짓게 하고 있다. 國民의 개화를 위하여 우리 文化의 保存을 위하여 또 傳承을 위하여 세워진 國立中央도서관이 호텔「불」에 밀려나고 말았다. 덕분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수려한 서울市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풍치좋은 南山으로 옮겨 안게된 재수 좋은 生員의 팔자가 되고 말았다. 國立中央도서관은 국가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근대화를 촉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대하여 적극 봉사하여야 하며 모든 도서관에 앞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별로 할 일이 없는 生員과 같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현상이 우리 도서관가 같은 共通點인 것이다. 또 이것은 화려한 무대위의 가실물에만 현혹되어 그 실속에는 盲目한 것같이 보이는 우리 文化政策의 일단이기도 한 것 같다.

학교가 팽창하고 체육시설이 곳곳에 생기고 각종 문화기관이 확장되는데도 그들은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할 기능을 갖는 기본시설인 도서관은 수년전보다 별로 나아진게 없고 정책당국자의 冷待地域이고 정책 空虛지대이다. 어느 한 지역의 기관장이 「기왕 있는 도서관을 없앨수는 없고 귀찮게 豫算만 들어 간다」고 투덜대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현실이 고작 도서관에 대하여 갖는 觀心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全國 1백80여개의 市, 郡區에 10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제대로 도서관의 형태를 갖춘 도서관은 그중 겨우 30여개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통계표상에 나타나 있는 숫자상의 도서관에 불과한 것들이다. 우리보다 文化的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亞細亞 諸國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다. 도서관 專門인인 司書도 공공도서관의 경우 121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서울 등 도시에 집중하고 있어서 대부분 지방도서관은 司書 한명을 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도서관에 소속된 직원은 거의가 임시적 또는 행정직에서 轉補된 사람들이다. 도서관이 이러한 환경하에서 어떻게 절대적 봉사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도서관界가 요구하는 사항은 대단히 많은 것 같으나 그 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방치상태의 도서관을 최소한이라도 修理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년 도서관주간이나 독서주간등 때에 만이라도 도서관 육성을 촉구하고 있는 言論이 도서관인들에게는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계절처럼 찾아오는 때에 언론인들은 도서관의 육성에 대하여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아마 세간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그때에 언론에서 도서관 문제를 다루는 만큼 다루어졌다면 그것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남았을 것이며 즉각 반응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 틀림 없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도서관 문제만큼은 한쪽에서만 실성한 사람처럼 떠돌고 있는 격이니 이점만이 매우 흥미거리인 것이다. 도서관 육성에 대하여 선진국의 수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行政支援만이라도 약간 부어 준다면 도관관界의 意慾이 虛慾으로만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도서관의 豫算確保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위정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認識과 먼 눈으로 내다보는 炯眼만 가졌다면 한쪽에서는 增設要求와 計劃이 한창인데 또 한쪽에서는 별반 대책도 없이 앉아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